‘꽃보다 동자승’ 훈훈한 마음 담으세요

‘경륜 스님의 착한 전시회 이야기’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에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꽃이 여기에 있다. 환한 미소의 동자승이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경륜 스님의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훈훈한 겨울을 만들어준다. 스님은 말한다. “꽃이 펴서 봄이 아니라 네가 와서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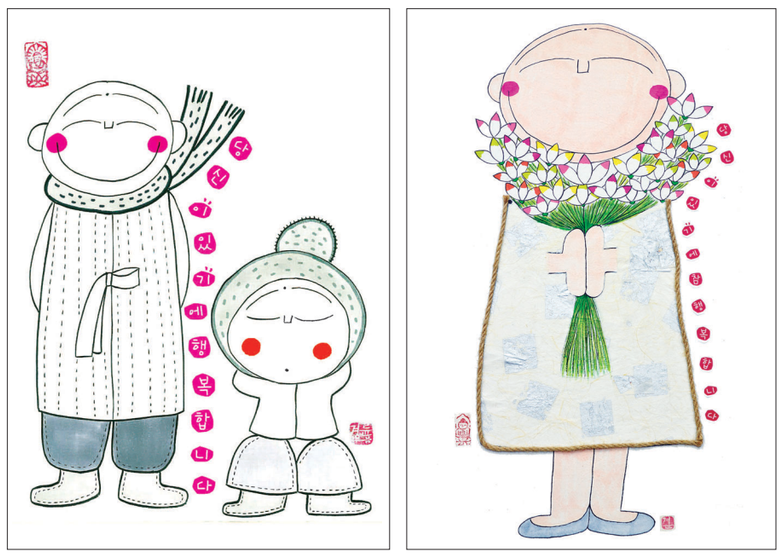
그렇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봄이 될 수 있다. ‘경륜 스님의 착한 전시회 이야기’가 12월 13일까지 경북 구미 여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남는 시간에 틈틈이 그림을 그려왔다. 전시로는 이번이 네 번째다.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처럼 재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는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주변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2010년 처음 전시를 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죠. 전시한 그림 200점이 다 나갔어요.”

스님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먹선으로 스케치하고 채색해 그려냈다. “제 그림의 주된 소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에요.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가령 아이들은 닭들이 단추를 다 집어 먹어서 뱃속에 달걀이 들어 있다고 말해요. 너무 기발하고 재미있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모여 그림이 됐어요.”

스님 그림 속 동자승은 기존의 모습을 탈피,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 아이들의 다양한 소망도 담아냈다. 물고기에 발이

어린이집 에피소드 그림으로
4회째 전시회 열며 수익금 전액 기부
12월 13일까지 여정아트갤러리서



‘경륜 스님의 착한 전시회 이야기’가 12월 13일까지 경북 구미 여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들의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달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스님이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의 바람은 고스란히 그림에 담겼다. 선화가 수안 스님은 경륜 스님의 작품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틀을 깨는 전시”라며 “주제의 신선함이 돋보인다”고 평할 정도로 동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스님의 전시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수익금 전액을 혜명 요양원과 금오종합복지관 등 소외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점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 역시 수익금을 소외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제 전시는 그림이 쉬워서, 웃는 게 기분 좋아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관람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인만큼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했다고. “타일이나 컵에 그림을 그린 소품도 내놓고, 방명록도 기존의 딱딱한 서명란보다는 과일 포스터잇을 큰 접시에 붙일 수 있도록 꾸몄어요. 또한 연말에 하는 전시인 만큼 다식과 차를 준비해 송년회 오는 기분으로 들르셔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스님의 일정은 바쁘다. 각종 바자회와 단체 등의 연말 행사에 그림을 기부해 작은 전시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달 강원도 홍천의 군부대 화보에 그림을 보시하는 등 스님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3년 뒤에는 서울 인사동 전시를 목표로 한다는 스님은 오늘도 환하게 웃는 동자승을 통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054)456-31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선 사람들 열망과 불심 엿보다

상원사문수전 문수보살좌상
보물지정기념 복장유물특별전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원행스님)은 2015년 1월 11일(일)까지 상원사문수전 목조보살좌상 보물지정을 기념하는 ‘화엄연꽃가지를 들다’ 복장유물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과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유물을 한 곳에 모아 발원문과 경전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시에서는 1466년에서 1670년대 조성된 상원사문수보살상과 문수동자상 불복장을 통해 조선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불복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복장이 지닌 상징과 더불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인들의 지극한 열망 그 순수한 불심을 엿볼 수 있다.

2015년 1월 11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 전시실

발원문은 불상을 만들게 된 이유와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후대에 보수한 기록도 적어놓고 있다. 문수동자상의 발원문에는 세조의 둘째딸인 의숙공주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오대산 문수사에 여러 불보살상을 만들고 모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수보살상의 발원문에는 705년 처음 문을 연 상원사가 1660년 세번째 중창을 하였으며 순치18년인 1661년 오대산진여원에 문수대보살, 오대오여래, 남순동자, 선재동자 등을 조성한 사실이 적혀있다. 또한 아미타불, 대지문수사리보살, 대비관자재보살 등 모든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의 빛 대비원력으로 몸과 마음의 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환적 청공자 의천의 발원내용이 묵서와 주서로 적혀있다.

1661년 조성된 상원사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의 복장에서는 불경류, 기문류, 다라니류, 후령통 등 33종의 자료가 발굴되었다. 이는 대부분 고려중기부터 조선초기의 자료들인데 수적으로는 묘법연화경이 가장 많았고 백지묵서사경인 광백론석론 권5와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고려시대 사경으로서 가치를 본다면 단연 으뜸이다.

문수보살조성발원문은 불상의 조성연대와 조각승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라니와 후령통도 당시의 복장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상원사목조문수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은 2014년 1월 보물제1811호, 1812호로 지정됐다.

이에 그동안 복제품으로만 만났던 세조어의와 의숙공주발원문을 원본 그대로 전시한다. 문수보살상의 발원문과 진언다라니, 장정이전의 묘법연화경 전권을 살펴볼 수 있는 점 또한 주목된다. 문수동자좌상과 상원사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물을 통해 복장물이 지닌 의미와 상징, 문수보살상 복장의 특징 등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033)339-6633

정혜숙 기자

상원사 문수전 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보물793호 세조어의(왼쪽)와 보물793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의숙공주발원문.

‘만다라’ 영혼 보듬는 끝없는 항해의 시작

김영옥 7회 개인전 ‘출항’… 12월 12일~18일

만다라 작가 김영옥의 ‘출항’전이 12월 12일~18일 상암 DMC 홍보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세상의 소리를 담은 큰 배의 출항입니다. 이 속에는 마음에 상처 입은 자, 희망을 잃고 떠도는 자, 사랑이 메마른 자, 그들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이 영혼들을 보듬는 끝없는 항해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7회 김영옥 개인전 ‘출항’이 12월 12일~18일 상암 DMC 홍보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새벽 명상으로 마음을 비워내고, 그 빈 공간에 저절로 고이는 심상들을 건져 올려 ‘새김과 문양과 그림’으로 담아내는 만다라 작가 김영옥 씨.

만다라는 마음을 비추는 ‘사방이 둥근 거울’이라고 말하는 그는 지난 20년간 새로운 만다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만다라에 서예, 전각, 석채(石彩)가 도입하기도 했죠. 또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내 마음부터 담아내기 위해 마음 속 우주를 명상으로 재해석했어요. 이번 작업은 붓으로만 새기듯 그렸어요. 그래서 상징들이 정형이 아니라 작품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무정형(無定形)’이 됐어요.”

그간 작가는 창작과 더불어 만다라 보급에도 주력했다. 작가에게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만다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 만다라심리학회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만다라 보급 프로그램과 만다라워크북을 제작해 세상에 만다라를 알려왔다. 특히 ‘마그마힐링(magma healing)’ 프로그램으로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며 만다라로 세상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왔다. (02)309-7067

정혜숙 기자

BTN ‘한민족 통일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식

‘제 1회 한민족 통일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BTN 불교TV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민족 통일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종합대상(대통령상)은 기악 부문의 임정선 씨가, 학생부 종합대상(통일부장관상)은 기악 부문 김수진 학생이 수상했다.

일반부 대상에는 판소리 부문에 김예진, 무용에 우한웅, 민요에 유희선, 전통연희에 임영호 씨가 각각 선정됐다. 학생부 대상에는 판소리 부문에 조예원, 기악에 황보민경, 민요에 김시화, 전통연희에 강수정 학생이 선정됐다. 일반부 종합대상에는 시상금 5백만 원과 5백만 원 상당의 부상이,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각각 시상금 1백만 원과 5십만 원이 수여됐다.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7십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정혜숙 기자

천양희 시인 제9회 불교 문예 작품상 수상

제9회 불교문예작품상에 천양희 시인〈사진〉의 ‘나는 자연을 쓰는 서기’가 〈불교문예〉 2014년 가을호)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혜관, 장영우, 문태준 씨 등이 참여했으며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6시 인사동 대성한 정식에서 진행된다.

천양희 시인은 “시를 써온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오십년만에 겨우 시를 통해 사람을 알았고 사람을 통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품상을 주시니 게송(偈頌)을 받듯 두 손으로 받겠습니다. 이 상으로 제 정신의 그름을 거두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시의 염주나무 한그루 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의 고비를 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인사의 글을 남겼다.

천양희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람 그리운 도시〉 〈하루치의 희망〉 〈마음의 수수밭〉 등이 있으며 소월문학상 현대문학상 제13회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정혜숙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명품승복(가사전문)
발명특허 3땀가사 제10-1448820호
전통 3땀
명품승복 사장인 저는 사찰에서 관음기도 중 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상(賞)을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①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②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③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